비교문화연구 제77집 (2026.2) pp. 355~390

만년기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 에서의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에 관한 고찰

이 계 삼
(도시샤대학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고는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 사회의 그늘을 상징하는 ‘미나마타병’을 문학적 화두로 삼고, 근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정신적 대결을 이어 간 작가 이시무레 미치코(1927–2018)의 만년기에 두드러지는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태도를, 그녀의 미나마타병 투쟁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시무레는 1959년 처음으로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만난 이후,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금전적 보상 문제를 둘러싼 다툼과 이로 인한 환자 및 가족 내부의 분열,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사망한 환자들의 신체가 의학적 해부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근대적 의학 체제의 폭력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투쟁의 현장에서 체감한 근대적 도시 문명의 정신적 불모성에 깊이 절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쌓아왔던 정신적 고통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혼’을 단지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닌 정신적 ‘실재’로 체감하였고, 여기서 ‘용서와 떠맡음’이 그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만년기 이시무레의 사상적 태도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이 ‘용서와 떠맡음’은, 이시무레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에서 얻었던 경험과 기억의 산물이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원념’(怨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방법임과 동시에, 근대적 폭력과의 정신적 대결을 이어가는 수단이기도 했다.

이시무레는 비–근대적 세계가 담고 있는 아름다움과 미나마타병 환자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대조시키면서 중요한 정치적 긴장감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본고는 이시무레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투쟁을 ‘혼’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피해자들을 도덕적 미학적 표상으로 설정하였고, 만년기에 이르러 이를 ‘용서와 떠맡음’으로 사상화함으로써 기존의 가치체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그 정치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 이시무레 미치코, 미나마타병, 용서와 떠맡음, 경험과 기억, 혼의 실재

www.kci.go.kr

Ⅰ. 서론[1)]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 사회의 그늘을 상징하는 ‘미나마타병’을 문학적 화두로 안고 활동한 작가 이시무레 미치코(石牟礼道子1927-2018) 는 전후 일본의 구마모토 및 미나마타의 지역 가단(歌壇)에서 단가(短歌)를 발표하며 문학에 입문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인 다니가와 간(谷川雁1923-1995)과의 만남을 계기로 규슈 지역의 서클 운동체인 ‘서클무라’(サークル村)에 참여하게 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동료인 우에노 에이신(上野英信1923-1987),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1927-2022) 등과 교류하며, ‘기키가키’(聞き書き,듣고 쓰기)라는 문자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민중들의 구술 기록의 방법론을 공유하면서 ‘서클무라’에서 활약했다.

이시무레는 1959년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처음 만난 이후, 오랜 기간 이들의 곁을 지키며 미나마타병과 관련된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시무레는『고해정토—우리의 미나마타병』(1969)을 발표하여, 문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이시무레가 발표한 시, 소설, 평론, 에세이, 노(能) 등 다채로운 작품세계는 단행본으로만 42권에 달한다[2)].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시무레 문학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이시무레의 문학을 ‘미나마타병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폭력에 대한 문학적 대결의 액티비즘’으로서 바라보는 생태주의적 비평의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시무레의 독특한 문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키가키聞き書き’를 중심으로, 타자의 고통에 감응하고,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정신적 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이시무레의 대표작인『고해정토』를 중심으로 이루어

1) 본고에서 이시무레의 전집(『石牟礼道子全集 不知火』, 藤原書店, 2004~2012)에 대한 인용은 권수와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全集*:***”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케자와(池澤2011:4-5)에 의거한다.

www.kci.go.kr

지고 있는 한국의 이시무레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먼저, 이시무레의 작품세계를 이른바 생태주의 비평의 영역에서 논의하는 경향에 대해 살펴보자[3]. 예를 들어, 일본의 생태주의 문학에 관련된 논의를 정리한『월경하는 토포스(topos)—환경문학론서설』(2004)에서 이시무레는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작가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을 매개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애착과 친밀한 공동체의 붕괴감각"(生田省吾 2004:29-33), "환경 문제를 둘러싼 조직적 언설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結城正美 2004:187), "현대 문명 속에서 거의 상실되어 버린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언령'(言靈)에 대한 성찰"(ブルース・アレン 2004:287) 등의 표현들이 두드러진다. 이 중에서 結城正美(2004:254)는 "환경 문학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환경 액티비즘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시무레가 "근대라는 괴물에 맞서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이야기(物語)'를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이시무레 문학의 생태주의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한편, 이러한 생태주의 비평과는 조금 다른 문제의식 아래 이시무레

3) 이시무레 문학에 대한 생태주의적 이해는, 이시무레가 세상을 떠난 뒤 마련된『겐다이시소』(現代思想)의 추모특집(2018년 5월호)과, 가와데쇼보신쇼(河出書房新社)가 발간한『이시무레 미치코—잘 가오, 시라누이해의 언혼(言魂)이여』(2018)에 수록된 에세이와 논고, 대담 기사들에도 잘 드러난다. 물론 두 권의 추모특집호에는 이시무레 특유의 '타자되기'라는 문학적 공동성의 논의를 중심으로 그녀의 기키가키 방법론과 '유민'(流民) 모티프를 다룬 논고(佐藤泉, 水溜真由美, 井上洋子, 古賀徹)들도 실려있다. 그러나, 두 권의 추모특집에는 근대적 산업기술문명과 일본적 근대화가 남긴 폐해를 극복하는 정신적 가능성을『고해정토』,『봄의 성』,『세이난 전쟁 전설』,『동백의 바다의 기록』등 이시무레의 작품과 더불어 그녀의 비-근대적 정신세계로부터 찾는 논고와 대담(栗原彬・藤原辰史, いとうせいこう・若松英輔, 伊藤比呂美・高橋源一郎・町田康, 鎌田東二, 佐藤岳晶, 臼井隆一郎)이 다수 실려 있다. 또 한편, 이시무레의 작품 세계에 등장하는 비-근대 세계의 자연 생태와 민속지적 풍토성, 먹거리 등 일상 세계 묘사의 풍요로움에 관한 논고(野田研一, 雜賀恵子), 그리고 미나마타병과 그 투쟁을 둘러싼 이시무레의 문학적 대응을 일본의 근대 산업화와 규슈의 지역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논고(実川悠太, 仲田教人, 森元斎)가 실려있다. 그리고, 두 권의 특집호에 실린 추모 에세이들에는 근대 문명이 남긴 정신적 독소를 치유하는 이시무레의 정신적 감응력에 대한 예찬과 추모의 정념이 드러나고 있다.

www.kci.go.kr

문학의 출발 지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시무레가 1950년대 후반기부터 다니가와 간, 모리사키 가즈에 등과 함께 참여했던 집단적 문화 운동을 단서로 삼아, 당시 '서클무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던 '기키가키'라는 문학적 공동성의 양식, 그리고 '유민'(流民)을 둘러싼 집단성에 관한 논의 속에 이시무레 문학의 원점을 설정하려는 흐름이다.

佐藤泉(2022:211)는 "'서클무라'가 제기한 집단적 주체에 의한 문화 운동은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른바 근대 문학을 전복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모리사키 가즈에나 이시무레 미치코의 기키가키 작품을 지금까지 제대로 위치시키지 못했던 기존의 문학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사토는 문학에 관한 논의가 "개인을 단위로 하는 근대적 습속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집단적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공동성을 지향하는 양식으로서의 '기키가키'가 지닌 의의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시무레의 등단작이자 대표작으로 평가되는『고해정토』는 佐藤泉(2022, 2023), 井上洋子(2018), 高橋源一郎・斎藤真理子(2022), 渡邊英理(2025) 등에 의해, 화자인 미나마타병 환자와 그 가족, 기록자인 이시무레가 자/타의 경계를 넘어 동일화되어 서술되는 독특한 기키가키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거듭 논의되었다. 井上洋子(2018:105)는 "더욱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계급의 메탄가스 지대를 직시하겠다"면서 단가 창작 시대의 영탄적 정서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집단의 가치를 주창한 '서클무라'에서 활약하는 이시무레의 모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이노우에는 이시무레가 당시 좌파 문학 운동의 지도적 매체였던『인민문학』의 "모든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방언 사용을 중단하자"는 지도 방침에 따르지 않고, 기키가키 속에서 방언이 뒤섞인 대화를 재현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좌익 문학 진영이 추구하는 근대적 집단성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면서, 언어가 갖는 비-근대적이며 토착적인 정신성에 착목하는 이시무레의 모습이 드러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시무레 문학에 관한 논의 또한, 그녀의 대표

www.kci.go.kr

작인『고해정토』를 중심으로, 생태주의와 비-근대적 공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두 흐름 속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미정(2019)은『고해정토』를 '반근대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총괄하고, 무엇보다 고도성장기의 일본 사회에서 하층민 출신의 미나마타병 환자이면서 또한 대부분 여성이기도 한 이들 마이노리티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해, 이시무레가 '말대'(末代)라는 시대 인식과 '원'(怨)이라는 비-근대적 정념을 통해 저항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심정명(2015)은 이러한 이시무레 특유의 문학적 공동성에 대하여, 특정한 사건을 둘러싸고 설정되는 '산 자와 죽은 자',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경계'에 대한 물음으로 독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시무레 문학의 두 성격, 즉 근대적 폭력에 대항하여 문학을 통해 대결하려는 자세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껴안는 '타자 되기'라는 방법론의 문학적 구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의 이시무레 연구에서도 이시무레 문학의 종착점이자 그 사상적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許しと背負い直し)의 사상에 대한 내재적 접근과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水溜真由美(2005:214-215)는『고해정토』속에 그려지는 '피안적 아름다움'에는 이시무레 미치코의 페시미즘적 인간관이 작동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미즈타마리는 전통 사회의 억압과 미나마타병 환자에 대한 폭력과 더불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이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 서로의 간극을 깊게 만드는" 이시무레의 페시미즘이 그녀에게 "비범한 통찰력"을 부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시무레 문학에 가로놓인 페시미즘에 착목하는 미즈타마리의 접근은 이시무레가 미나마타 투쟁을 통해 얻었던 정신적 고통에 연루되는 경험과 기억의 세계를 환기한다.

본고는 이러한 미즈타마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이시무레가 만년기에 이르러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이에 연루되는 그녀의 경험과 기억을 기술한다. 그 과정에서

www.kci.go.kr

이시무레가 근대적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면서, 이에 맞서는 정신적 수단으로 ‘혼’이라는 세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근대적 정신세계를 하나의 ‘실재’로 받아들임으로써 획득한 문학적 성과를 부각하고자 한다. 또한편 본고에서는, 이시무레가 미나마타 투쟁을 ‘혼’의 싸움으로 설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을 미학적 도덕적 주체로 설정하면서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부터 비약함으로써, 그 정치적 긴장이 이완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본고는 이를 통해 생태주의적 접근과 문학적 공동성 논의를 관통하는 이시무레 문학의 사상적 성격에 대한 더욱 진전된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4].

Ⅱ. 본론

1.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태도

먼저, 본고의 주된 분석의 대상인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1998년 3월 28일, 당시 71세였던 이시무레는 구마모토 대학의 영국철학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파도와 나무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다. 이시무레는 1958년 연말 무렵 구마모토 대학 미나마타병 연구반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나마타병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米本浩二 2020:119), 이 강연은

4) 渡邊英理(2025:20,178-223)는 문학을 통한 사상의 표현, 즉 ‘픽션이라는 형식을 구사하여 표현된 사상’이라는 의미에서 ‘사상 문학’(思想文學)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그 한 과제로써 이시무레의 유년기 자전소설 『동백의 바다의 기록』(1976)에 드러나는 ‘차안과 피안,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지는 이시무레 사유의 횡단성과 월경성, 그리고 ‘여자’로서의 근대적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감과 케어의 윤리의식’을 사상화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와타나베의 ‘사상문학’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며, 특히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정신적 태도를 사상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9년 5월 이시무레는『고해정토』제1부3장의 화자인 사카가미 유키(坂上ゆき)를 병문안하면서 처음으로 미나마타병 환자와 직접 만났다. 그 이후로부터 그녀는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투쟁에 함께 하게 되었고, 오랜 기간 그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리고, 1990년 3월에 이르러서야 짓소(チッソ) 미나마타 공장이 배출한 미나마타만의 수은 오니에 대한 매립이 완료되었다[5].

이 구마모토 대학 강연 3년 전인 1995년부터 이시무레는 오가타 마사토(緒方正人1953-)와 스기모토 에이코(杉本栄子1938-2008) 등 미나마타 투쟁의 동료들과 함께, 미나마타병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방식과 현대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지향하는 '본원의 모임'(本願の会)을 결성했다. 이들은 미나마타만 매립지의 한 귀퉁이에 매년「미나마타가 나에게 묻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다섯 기의 '혼석'(魂石)이라 이름 붙인 석불을 안치하는 행사를 거행해 왔다.

이 강연회에서 이시무레는 '본원의 모임'의 문제의식에 대해, 지금까지의 미나마타병 투쟁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아무래도 무언가 다르다. 우리들이 살아온 실감과는 다른 운동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한다. 이어서, 이시무레는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아 살아온 혼의 세계에서의 좋은 날들이 있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보상인정서는-인용자 주) 살아온 증표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全集15:571).

---

5) 그 사이에 이루어진 미나마타병 투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63년 2월 구마모토 대학 연구반에 의해 미나마타병 원인 물질이 공식 인정되었고, 1968년 5월 짓소 미나마타 공장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 생산 중지가 결정되었다. 1968년 9월, 일본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공식 인정했다. 1969년 4월, 29세대의 환자들에 의해 짓소의 미나마타병에 대한 책임 인정과 보상을 둘러싼 재판 투쟁이 시작되었고, 나아가 1971년 12월에는 가와모토 데루오(川本輝夫)를 선두로 한 미인정 환자들의 짓소 도쿄 본사 연좌농성과 자주 교섭이 시작되었다. 1973년 4월 구마모토 지법 원고 승소 판결로부터 재판 투쟁은 도쿄의 짓소 본사 자주 교섭단의 연좌 투쟁과 합류했고, 두 투쟁은 1973년 7월을 기하여 최종 승리로 이어졌다. 이시무레는 이러한 투쟁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를『고해정토』3부작에 담았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渡辺京二(2014:309-372)에 의거한다.

www.kci.go.kr

이시무레의 이 발언은 1973년 4월 구마모토 지법에서의 승소 판결과 그 해 7월부터 시작된 미인정 환자들의 자주 교섭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 그녀가 때때로 이야기한 '보상인정서 때문에 미나마타 투쟁의 혼이 사라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시무레는 1975년 사상사가인 후지타 쇼조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 『고해정토』를 쓰기 전부터 도쿄에서의 연좌농성을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보상인정서-인용자 주)이 조인되어 버리고, 당시로서는 큰돈이 들어왔지요. 그 직전부터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운동이. 이 투쟁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고, 환자들 측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지만, 결국 운동의 가장 순수한 핵심 부분인 영혼이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 보상금을 따냈다는 느낌으로 무너져 버린 셈입니다. (全集7:470)

이시무레에게 있어 미나마타병 투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보상금 문제는 미나마타병 투쟁의 '혼'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1998년의 이 강연회까지 이시무레의 사유를 관통하고 있다. 이시무레는 이 구마모토 대학 강연에서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에서 무엇이 괴로웠냐고 묻는다면, 인간과의 유대가 끊어진 것이 가장 괴로웠다. 제도화된 인간, 근대의 제도 속에 편입되어 버린 인간들을 만나는 것이 절망의 근원이었다"라고 토로한다(全集15:571). 이 발언을 통해 정부나 가해 당사자인 짓소와의 교섭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경험한 여러 사건들, 이를테면 미나마타 지역 사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가짜 환자' 소동을 상기하게 된다. '본원의 모임' 결성의 주역이기도 한 미나마타병 환자 오가타 마사토는 1973년 미인정 환자 교섭 투쟁 도중, "가짜 환자가 많다"라고 발언한 구마모토 현의회 의원에게 항의하는 와중에 그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 기소된 적도 있다(実川悠太 2018:571).

또한, 이시무레가 이 강연에서 언급한 "인간과의 유대"라는 표현을 통해

www.kci.go.kr

보상금을 둘러싸고 환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열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시무레는『고해정토』제2부2장에서, "언니는 사세보에서 콩 팔이, 한몫 움켜쥔다. 차녀는 후쿠오카 탄광, 막내는 나가사키 탄광. 엄마는 돈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라며, 한 미나마타병 환자가 다른 환자의 생활보호자 혜택를 해지시키기 위해 시민국 민생과에 서툰 가타가나 글씨로 투서한 내용을 원문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시무레는 이 대목에서 "차별이 솟아오르는 근원은, 가장 학대받는 자들끼리의 의지할 곳 없는 원념(怨念) 사이에서 피어오른다"라며 절망감을 토로한다(全集2:345-346).

이러한 경험과 기억을 안고 투쟁을 이어온 이시무레와 동료들이 '본원의 모임'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이 강연에서 이시무레가 말하는 바와 같이 "혼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이다. 이시무레는 '본원의 모임'의 동료인 스기모토 에이코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이제 어차피 우리들은 미나마타병을 안고 가겠지만, 가해자나 그 동조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려 했던 것도 무리한 일이었다. 좋다, 이제 전부 우리들이 짊어지자. 우리가 다 짊어지면서, 지금까지 접촉했던, 적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그런 입장에서밖에 처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수난을 겪어보고서야 비로소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인간을 이해한 것은 수난을 짊어진 우리가 먼저다. 그렇다면 용서하자. 용서하자고 한들 미나마타병 전부를 누구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까지 포함해 전부 우리들이 떠맡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짓소 공장이 면해있는 시라누이 바닷가의-인용자 주) 용나무 아래 모여서 하십니다. …… 이렇게, 우리들이 다 짊어짐으로써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에이코 씨는-인용자 주) 최근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신의 계시를 듣는 듯한, 혹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필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밑줄은 인용자, 全集12:572-573).

'본원의 모임'이 결성되는 데에는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용서와 떠맡음'을 내걸었던 스기모토 에이코와, 그녀의 말을 "신의 계시"와 같이

www.kci.go.kr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이시무레, 그리고『짓소는 나였다』(2001)라는 파격적인 선언을 '미나마타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오가타 마사토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시무레는 이러한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을 그녀가 2003년 발표한 신작 노(能)『시라누이』(不知火)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용신과 해령궁의 딸인 시라누이와 그 동생 도코와카(常若) 남매가 자신들의 몸을 바쳐 바다와 육지에 가득한 독을 거두어내는 이야기이다. '본원의 모임'의 두 주역 스기모토와 오가타를 연상시키는 이들 남매는, 신들에게 생명을 재생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스스로 몸을 던지려할 때, 보살에 의해 영접된다(全集16,12-21).

이시무레를 포함하여 이들 세 사람이 공유하는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입장은, 가해자인 짓소와 이들을 비호한 일본 정부,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인 환자와 그 가족들을 핍박한 이들로부터 받았던 폭력과 상처에 대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 자신의 육신의 고통으로 떠안고자 하는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피해 당사자의 자격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서와 떠맡음'의 태도에는 미나마타병의 피해자로서의 당사자 의식, 바꾸어 말하면 책임을 떠맡는 주체이자 용서의 주체이기도 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나마타병을 불러들인 근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항하면서, '혼'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는 정신적 태도에 이어진다. 그리하여, 이것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을 영혼의 투쟁으로, 그리고 그 피해자인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로 설정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만년기의 이시무레가 천착한 이러한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적 태도에는 그들이 헤쳐왔던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오랜 투쟁 속에서 겪어야했던 여러 사건들에서 얻은 절망감이 감돌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시무레는 평론가 이케자와 나쓰키(池澤夏樹)와의 대담에서, 스

www.kci.go.kr

기모토 에이코가 자신에게 "미치코 씨, 저는 지금까지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짓소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모른다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라고 털어놓았음을 소개한다(石牟礼道子・池澤夏樹 2011:1-2). 더 나아가 오가타 마사토는 "그때까지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던 것에서 자기 스스로의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케물어지는 반전이 일어나, 나 또한 또 한 명의 '짓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오가타는 이를 깨달은 순간이 "미나마타병의 원념으로부터 해방된 순간이기도 했다"고 고백한다(緒方正人 2020:20-21). 이처럼 '본원의 모임'이 내건 '용서와 떠맡음'은, 스기모토가 말하는 '복수의 불가능성'과 더불어, 그들의 오랜 투쟁 경험과 그것이 자아낸 정신적인 고통의 표현이면서, 더 나아가 그들이 수행해 온 근대적 폭력과의 정신적 대결을 지속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시무레가 구마모토 대학의 강연에서 강조하는 "우리들의 혼이 여기에 살아있었다는 증표"라는 말에서 두드러지는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시무레는 이 '혼'을 단순한 형이상학적 '관념'을 넘어서는, 하나의 정신적 '실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인생의 만년기에 다다른 이시무레가 말하는 '용서와 떠맡음'에 대한 윤리적 올바름에 바탕한 가치 판단 이전에, 이시무레가 이처럼 '혼'의 문제로 '용서와 떠맡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표현하는 언술로 삼게 되는 과정에 대한 내재적 고찰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이시무레가 '혼의 실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과, 그것이 획득한 문학적 성과

1950년대말 '서클무라'에서 활약하던 30대 초반의 주부였던 이시무레가『서클무라』1959년 12월호와 1960년 3월호에 연이어 발표한 자전적 에세이「애정론」에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진눈깨비가

www.kci.go.kr

흩날리는 어느 저녁, ‘간진’(勧進)이라 불리는 구걸 모녀가 이시무레가 살고 있던 마을을 지나간다. 어린 ‘미찡’(이시무레의 아명)은 어머니를 졸라 받은 1전을 소녀에게 주려 한다. 그러나 그 아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곤란해진 미찡은 그 아이 뒤에서 힘껏 스륵스륵 짚신 소리를 낸다. 그 와중에 두 아이의 시선이 찰나적으로 마주치고 만다. 이 대목을 이시무레는 이렇게 쓰고 있다.

>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를 올려다본 그 아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당황한 내 손이 그 아이의 손에 닿아 양쪽 손바닥의 튼 살이 바스락 소리를 냈고, 1전 동전은 가냘픈 소리를 내며 진눈깨비 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나는 도망쳤습니다. 와앙, 하고 슬픈 기분이 나를 뒤쫓아오고, 달려도 달려도 뒤쫓아와서, 어디에 숨을까, 창피해서 전신주 그늘에 주저앉은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 애틋하고 달콤한 것이 슬픔과는 다른 허망한 것으로 바뀌면서, 그때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처음으로 조우했던 것입니다. (밑줄은 인용자, 全集1:90).

이 에피소드를 통해 이시무레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슴 속 깊은 곳 그 애틋하고 달콤한 것이 슬픔과는 다른 허망한 것으로 바뀌면서”라든지, “인간이라는 존재와 처음으로 조우했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시무레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의 유년기의 기억 중에서, 스스로가 물질적 현상세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혼’을 가진 인간이며, 같은 ‘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타인과 처음으로 대면했던 기억을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시무레가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1959년 12월은 앞서 서술했듯이 이시무레가 1958년 말경 구마모토 대학 미나마타병 연구반의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 이른바 ‘대신 앓기(受け病み)’의 상태에 빠진 것[6], 그리고 1959년 5월에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처음으로 조우한 사건과 시간

www.kci.go.kr

적으로 이어진다. 이시무레는『고해정토』제1부3장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친 미나마타병 환자 가마쓰루마츠(釜鶴松)의 모습을 묘사할 때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버려, 두려운 듯 뒷걸음질 치는 듯한 눈동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밑줄은 인용자, 全集2:106-107). 이때, 이시무레가 가마쓰루마츠에 대해 "뒷걸음질 치는 듯한 눈동자"라고 묘사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유년 시절 만난 구걸하는 소녀에 대해 "그 아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라고 쓴 것과 겹쳐진다. 이시무레는 "가마쓰루마츠의 슬픈 산양 같은 물고기 같은 눈동자와, 물길을 떠다니는 통나무 같이 되어버린 자태와, 결코 왕생할 수 없는 혼백은, 이날부터 전부 내 속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밑줄은 인용자, 全集2:106-107). 그리고, 이시무레는 이 구걸하는 소녀와 만난 에피소드를 1983년 발간된 유년기 자전소설『실뜨기 놀이의 기록』속에 삽입할 때에는 "그 아이는 또 다른 나였을지도 모르네"라며 자신의 목소리를 덧붙인다(全集7:25).

이렇게 하여,『고해정토』속의 이시무레와 그녀가 처음으로 접한 미나마타병 환자 가마쓰루마츠, 그리고 유년시절의 미찡과 구걸하는 소녀는 서로 겹쳐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시무레 문학을 둘러싼 논의의 큰 흐름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허물고, 이 둘을 하나의 자아로써 겹쳐가는 이시무레 특유의 '문학적 공동성'의 한 구현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시무레가 가마쓰루마츠에게 그러하듯이 스스로를 겹쳐가고자 하는 미나마타병 환자와 그 가족들 사이에는 언제나 "불일치"가 생겨난다. 그리하여 그녀는 레비나스가 규정하듯, 이러한 "불면증"과 같이 떨쳐버리기 어려운 힘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는 "불일치"의 경험과

6) '서클무라'의 동료였던 여성사 연구자 고노 노부코(河野信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시무레가 미나마타병에 관한 보고서를 읽고 정신적 충격으로 앓아누웠을 때, 같은 '서클무라'의 동료인 모리사키 가즈에가 병문안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모리사키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너무나도 괴롭게 뒤척이고 있네. 어떻게든 일어나야 할텐데"라고 걱정했던 일화를 전하고 있다(米本浩二 2020:119).

www.kci.go.kr

기억으로부터 스스로를 견디기 위해 “영원”한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레비나스 1996:22-23,46-50). 이시무레에게서 ‘혼’은 이러한 “불일치”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써 밀착해 있다.

이를테면,『고해정토』에서 이시무레가 가마쓰루마츠와의 첫 만남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그녀가 죽어가는 가마쓰루마츠의 뇌의 상태를 상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이시무레는 “그의 지금 탈락해가는 소뇌 과립 세포를 대신하고 있는 알킬수은이, 그 구조가 ‘CH3-Hg-S-CH3’이든 ‘CH3-Hg-S-Hg-CH3’이든 간에……가장 중층적이고, 부정적이며, 또한 기분 나쁜 부분이다”라고 중얼거린다(全集2:106-107). 이 장면의 심리 묘사를 통해 지금 서술자인 이시무레 자신이 심적으로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진다. 그것은 아마도 이시무레가 얼마 뒤 가마쓰루마츠가 사망하고 나면 행해질 뇌 해부 장면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시무레는『고해정토』에서 가마쓰루마츠와의 만남을 묘사한 이후, 여러 곳에서 환자의 시신 해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이시무레는 “대학병원 의학부는 무섭구려. 인간을 요리하는 커다란 도마가 있는 곳이니까요”라는 환자의 독백을 빌려, 미나마타병으로 사망한 이들에게 행해지는 신체 해부에 대한 공포와 저항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실제로 1965년 이시무레는 환자 요네모리 히사오(米盛久雄)의 시신 해부에 참관하여 그 장면을 직접 묘사한다(全集2:131-134). 그리고,『고해정토』제2부4장「꽃수레」에서는 제2부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에고시타 마스(江郷下マス)가 세상을 떠난 자신의 다섯살배기 딸 가즈코(和子)의 생선 토막처럼 되어버린 해부된 유체를 수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한다. “붕대로 칭칭 감겨, 눈이랑 입술 밖에 안 나와서, 피라고 해야 할지, 즙 같은 것이 배어 나오는” 딸의 토막난 유체를 모아 등에 업고 어머니인 마스가 대학병원에서 밤의 기찻길 선로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고해정토』제2부의 클라이맥스라 할 짓소 주주총회장 영가(靈歌) 퍼포먼스라는 ‘혼의 복수’의 장면으로 이어진다(全集2:511).

이시무레는 미나마타병의 원인 제공자인 짓소로 대표되는 근대적 산

www.kci.go.kr

업기술문명 체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따라서 위에서 보듯이 근대 의학의 체제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시무레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미나마타병 환자 가마쓰루마츠의 "완전히 무방비한, 두려운 듯 뒷걸음질 치는 듯한 눈동자"가 어느 순간에는 의학적 해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근대 문명과 자신의 근원적인 "불일치"를 간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시무레는 이러한 무구한 존재에 대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이를테면 가마쓰루마츠의 "완전히 무방비한, 두려운 듯 뒷걸음질 치는 듯한 눈동자"에 투영된 인간 존재의 무구한 '혼'의 실재를 상기하고, 여기에 어린 시절 만났던 구걸하는 소녀의 기억을 '혼'의 만남으로써 겹쳐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시무레는 처음으로 조우한 미나마타병 환자인 가마쓰루마츠의 병실을 거쳐, 『고해정토』제1부의 주요 등장인물인 사카가미 유키와 만나면서 제1부3장 「유키의 이야기」에 다다른다. 『고해정토』 3부를 통틀어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절은, 아마쿠사(天草)에서 미나마타로 흘러들어온 유민 사카가미 유키가 미나마타병에 걸려 재혼한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서서히 죽어가는 가운데, 병상에서 이시무레에게 더듬더듬 들려주는, 바다에서 보낸 시절의 기억이다.

> "밤 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역시, 바다야. 바다 위가 제일 좋았어. 봄부터 여름이 되면 바닷속에도 온갖 꽃이 핀다오. 우리 바다는 얼마나 예뻤는지. 바닷속에도 명소가 있어요. '찻종의 코'라든지, '맨살의 여울'이라든지, '검은 해협'에, '사자의 섬'이라든지.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익숙한 우리한테도 여름 문턱의 갯내음이 물씬 풍겨오거든. 그건 '회사' 냄새하고는 전연 달라요.
>
> 바닷물도 흐르는걸요. 따개비니 말미잘이니, 청각채니, 바닷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나 꽃들이 잔뜩 펴서 한들거려요. 그중에서도 물고기들이 참 예뻐. 말미잘은 만개한 국화꽃 같아. 청각채는 바다 속 절벽 어귀에 잘 뻗어난 가지들이 층층이 늘어서 있어. 톳은 눈버들이나 죽백나무 가지 같고, 해초는 대나무숲 같아. 바닷속 풍경도 육

www.kci.go.kr

> 지하고 똑같아. 봄도, 가을도, 여름도, 겨울도 있다우. 나는 분명 바다 밑에 용궁이 있을 거라 믿고 있다우. 꿈처럼 예쁘다오. 바다에 질린다는 일은 죽어도 없었어. …… 내 몸뚱아리에 두 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고, 그 두 다리로 딱 버티고 서서, 내 몸뚱아리에 두 팔이 붙어 있고, 그 팔로 노를 저어 파래를 따러 가고 싶네. 눈물이 날 것 같아.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오, 바다로."(全集2:122-123)

미나마타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카가미 유키는 바닷속을 유영하는 인어와 같은 시선으로 미나마타병 이전의 시라누이 바다를 주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시무레는 사카가미 유키의 기억을 통해 어느덧 물질적 시・공간의 지평을 넘어 '혼'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기억의 세계로부터 현실로 돌아온 사카가미 유키는 서서히 죽어가는 몸으로 병원 복도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담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해정토』의 제1부는 1967년 9월 22일에 있었던 소노다(園田) 후생대신의 미나마타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그때 사카가미 유키는 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원래의 성(姓)인 니시카타(西方) 유키로 되돌아와 있다. 게다가 그녀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경련 발작을 동반한 강한 착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가 평소 상태로 회복된 그녀는 "버리는 신이 있으면 돕는 신도 있다니까 라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한다(全集2:246)." 그리고 그날 니시카타 유키는 병실에서 "좋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노다 후생대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옆 환자인 스기하라 유리(杉原ゆり)를 향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일났네"라는 주절거림과 동시에 격렬한 경련 발작이 일어나고 만다.

> (니시카타 유키는) 대기하고 있던 의사 세 명에게 제압당해 진정제 주사를 맞았다. 어깨 근처와 양 발목이 주무르듯 눌리며 주사액이 주입되는 도중, 돌연 그녀의 입에서 "천... 황... 폐... 하... 만... 세..." 라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병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www.kci.go.kr

> 대신(大臣)은 순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스기하라 유리의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어 그녀의 얇게 파르르 떨리는 입술에서 엉망진창으로 음정도 맞지 않는 '기미가요'가 흘러나왔다. 가냘프고 알아듣기 힘든 음성이었다. 서늘하게 퍼지는 귀기(鬼氣)에 떠밀려 소노다 대신 일행은 기가 꺾여 병실을 떠나갔다. (全集2:246)

유기수은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현실로부터 '혼'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인어처럼 바닷속을 주유하던 사카가미 유키는, 현실에서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경련 발작에 시달리는 니시카타 유키가 되어 있다. 그런 그녀 앞에 천황의 대리인이 다가오자 다시 발작 상태에 빠져버린 그녀의 입술에서 천황의 구제를 호소하는 언어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현실의 국가 기구가 이 비참함을 구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이 대목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뱉어낸 이 말은 어떤 '귀기'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천황의 대리인을 쫓아버리고 만다.

'혼'의 세계가 그려낸 환상적 아름다움과, 니시가타 유키의 병실에서 벌어진 이 비참한 사건의 대비는,『고해정토』가 고도 경제성장기를 구가하고 있던 일본 사회에 발신하고자 한 정치적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3. '혼'의 투쟁으로 미학화 · 도덕화된 미나마타병 투쟁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고해정토』의 문학적 성과와 더불어,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이 싸움을 '혼'의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겹쳐가고자 했던 환자와 그 가족들을, 무구한 아름다움의 존재로써 미학화・도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시무레는 자신이 제안하고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 쓰루미 가즈코(鶴見和子) 등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1976년부터 1983년에 걸쳐 진행된 '시라누이해 종합 조사'를 총괄한 저작『미나마타의 계시』(1983)에 장편 에세이「젖의 물결」을 기고한다. 거기서 이시무레는 이

www.kci.go.kr

짓소 공장이 미나마타에 처음으로 들어서고, 거기서 뿜어내는 근대 문명의 광휘에 이끌려 미나마타로 흘러들어온 아마쿠사 출신의 유민들이 품었던 '환상'에 대해 쓴다.

> 산 능선에 사방이 가로막힌, 하늘 밑바닥(天底) 같은 마을에서 빛이 적은 밤을 보내야 하는 마을 사람들이, 저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은은한 하레(ハレ, 비일상의 화려함-인용자 주)의 세계. 대대손손 이어질 하레라는 그 환상의 빛이 마을을 되비추는 것이다. 밑바닥에 있던 인간이 타인의 출세를 저토록 즐거웁게 이야기한 것은, 그 역시 저 너머의 등불을 우러러보며 눈부셔했다는 뜻이리라.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갔던 어두컴컴한 길은 환시의 등불을 향해 바다 위로 이어져 있었다. 대대손손 하레이고 싶다는 그들의 열망은 등에 짊어진 어둠의 깊이로부터 염원된 것이리라. (全集10:348-349)

이 글에는, '짓소는 이처럼 아마쿠사 출신의 무구한 유민들에게 환상의 광휘를 발산하여 그들에게 하레의 꿈을 꾸게 했으며, 마침내 그들을 미나마타병이라는 지옥에 빠뜨렸다'고 하는 이시무레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 글에서 미나마타로 흘러들어온 유민들은 근대 문명의 희생자이며, "타인의 출세를 저토록 즐거웁게 이야기하는" 무구한 혼의 존재로 묘사된다. 따라서 이시무레가 수행하는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은 '혼'의 싸움으로 위치지워지며, 도덕적 분노를 동반하게 된다. 여기서 이시무레가 1970년 당시 미인정 환자들과 도쿄에서 연좌 농성을 할 때 쓴 글을 보자.

> 도쿄로 불어들어온 문화는 아마 그런 옅은 피로 편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미 혈맥 속에 '물질'을, 저 갖가지 탄소 원자를 골격으로 구성된 유기 인산계나 유기 염소화물 따위의 다채로운 일상적 독약을 축적한 문화가, 그 정신이, 나른하게 가로누워 있었다. 그런 문화는 이미 '괴저'(壞疽)와 같은 끝을 알 수 없는 잔학성을 잉태하고 있었다. (全集4:465)

www.kci.go.kr

이시무레가 연좌 농성을 통해 경험한 도쿄는 영혼이 없는, 그저 독성 가득한 화학 물질의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혼이 없기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잔학하다. 거기서 이시무레는 "원시 인류에게 갖추어져 있던 침묵하는 신성"을 상상하지만, 도쿄는 이 신성을 "말끔히 '소실'하고, 또 '탈락'시킨 사람"들이 활보하는 공간이다.

더 나아가 이시무레는 그 다음해인 1971년에 발표한 에세이 「절대 부하(負荷)를 짊어진 사람들에게」에서 도쿄 연좌 농성 때 경험한 극한의 분노를 적는다. 국회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거리에서 이시무레는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죽은 소년의 영정이 실린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그때 이시무레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구겨버리는 남자에게서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통각"을 느낀다. 이시무레는 이렇게 말한다.

> 왜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남자를 끝까지, 끝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저 기분 나쁜 수도(首都)의 미로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밤낮으로 쫓아가지 않았을까. 쫓아가, 그 인간의 손바닥을 뚫어지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남자의 손목을 보고, 어깨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보고, 목덜미가 붙어 있는지를 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눈빛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당신도 아이가 있지 않나요?"라고 묻는 것이다. (全集3:431)

이시무레는 이 대목에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라며 오로지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남자와의 대화를 상상한다. 臼井隆一郎(2014:15-63)는 이 장면에서 그려지는 '밤낮으로 쫓아가는' 이시무레를 두고, 그리스 신화의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에 비유한다.

1968년 9월 일본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공식 인정한 이후, 그해 10월부터 짓소와 환자 가족과의 보상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환자 가족과 짓소가 상정하는 보상액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또한 미나마타 지역에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시기・질투와 더불어 유・무형의 괴롭힘이

www.kci.go.kr

횡행했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환자 가족 간의 분열도 깊어졌다. 그때 어느 환자 가족이 내뱉은 말을 이시무레는 에세이「복수법의 윤리」(1969)에 기록하고 있다.

>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그 대신 회사의 높은 양반들부터 순서대로 유기수은을 마시게 합시다. 40여 명쯤 죽어줘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차례대로 생존 환자가 되게 합시다." (全集4:417)

그러나 이러한 복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환자 가족들도 이시무레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이시무레에게 남은 것은 "후진적인 정신의 하반신" 같은 짓소 수뇌부에 대한 환자 가족들의 비난의 말이나, 미인정 환자들이 제기한 자주(自主) 교섭 도중 쓰러진 미나마타 시장에게 "벌 받았어"라며 혀를 차는 그들의 저주어린 말들을 기록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시무레는 이 투쟁이 결국 보상금 인정서를 매개로 한 '돈'으로 결말지어질 것을 예감한다. 오랜 시간 동안 미나마타병 투쟁의 최일선에서 풍찬노숙해온 이시무레의 분노는 이렇게 폭발한다.

> 여하튼 슈프레히코르(운동권 진영에서 사용하는 구호-인용자 주) 같은 것을 갖지 못한 나는 후생성 앞에 심정적으로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갈 곳 없는 증오로 생신(生身)이 그을리고, 나는 나 자신을 연기 피우듯 태운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는 이들을 애틋하고 분명하게 사랑하면서, 지금이라도 타오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게 된다. 타오르기 직전의 환상을 보고 싶다. 나도 그들도, 이 도쿄라는 인간 버러지들의 소굴과 함께 활활 타오르고 싶은 충동을 나는 견딘다. '한 송이 꽃의 환상' 만으로는 너무나 외롭다. 허공을 움켜쥔 채, 20년 가까이 아직 숨이 다하지 않은 이들의, 죽기 직전에 떠오르는 만다라(曼荼羅) 그림만으로는. (밑줄은 인용자, 全集4:463)

이 글은 1959년 구마모토 대학 병원의 병실에서 가마쓰루마츠와 사카가미 유키와 만난 이후로부터 1971년 보상금 인정서 체결에 이르는

www.kci.go.kr

12년의 시간 동안 이시무레 미치코가 품게 된 절망과 분노의 최대치를 표현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시무레를 이 싸움으로 끌어들인 것은 자신이 미찡이던 시절 만난 구걸하던 소녀의 기억, 그리고 소녀와 겹쳐진 환자 가마쓰루마츠의 "두려운 듯 뒷걸음질 치는 눈동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마쓰루마츠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시무레의 영혼의 의지처는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 모쿠타로(杢太郎) 소년과 같은 존재들이다.

『고해정토』 제1부에서 사카가미 유키와 함께 주요하게 묘사되는 모쿠타로 소년은 "입도 뻥긋 못 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변소도 못 가는" 더할 수 없는 비참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소년은 "가족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고, 혼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다. 이 모쿠타로 소년의 무구함이, 현재 이시무레로 하여금 '생몸을 그을리는'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어 있다(全集 2:155). 미나마타 병의 싸움에서 얻는 좌절의 경험과 기억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시무레에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위 글에서 그녀가 쓰고 있듯이, 환시(幻視)로 보이는 "한 송이 꽃"이며, "죽기 직전에 떠오르는 만다라의 그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이 싹을 틔운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요컨대, '겁먹은 듯 뒷걸음질치는 눈동자'의 무구한 가마쓰루마츠의 육신은 끝내 해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시라누이 바다를 주유하던 사카가미 유키는 후생대신 앞에서 더할 수 없이 비참함 모습으로 구제를 호소하면서 죽어갔다. 이시무레가 지키고 싶었던 미나마타 투쟁의 '혼'은 결국 돈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그리고, 도쿄에서 연좌농성하면서 그녀는 '혼이 없는' 존재들의 무심한 폭력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어야 했다. 이처럼, 더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그럼에도 복수가 불가능한 막다른 현실 속에서, 이시무레는 하나의 환시로서 '한송이 꽃'의 '만다라 그림'을 떠올린다. 거기에는 이처럼 이시무레가 겪은 미나마타 투쟁의 경험과 기억이 응축되어 있다.

www.kci.go.kr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이 총체적인 '원념'(怨念)으로부터 지켜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절망적인 세계를 치유하는 형상이 되었고, 여기서 본고의 서두에서 소개한 스기모토 에이코와 오가타 마사코가 그러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떠맡으려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4.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부터 비약한 만년기 이시무레의 사상적 태도

본고에서는 이시무레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표상을 중심으로,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이 처해있는 현실적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투쟁의 경험과 기억이 안겨주는 정신적 고통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이시무레를 구원한 것은 '한 송이 꽃의 환상'이었다. 이시무레를 '복수의 여신'으로 화(化)하게 만든 것도, 그리고 그러한 이시무레를 지탱해주면서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을 싹틔우게 만든 것도 모쿠다로 소년과 같은 무구한 영혼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시무레는 모쿠타로 소년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한 제1부 4장 '하늘 물고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축축한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쿠타로 소년을 앞에 두고, "소년도 나도 뭔가를 참아내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년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全集2:168). 그리고, 이시무레는 '유키 이야기'와 함께『고해정토』3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1부4장 '하늘 물고기'를 아래와 같이 모쿠타로 소년의 모습을 묘사하며 마무리한다.

> 소년은 고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여운 누에처럼, 우둘투둘한 낡은 다다미 위를 기어다니며, 가느다란 배와 손발을 뒤틀어가며, 푸르고 투명한 목덜미를 쑥 쳐들고서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

www.kci.go.kr

> 이었다. 소년의 눈동자는 옹달샘의 그늘에 비치는 개머루처럼 어디 서든지 반짝 빛나고 있었다. (밑줄은 인용자, 全集2:169)

이시무레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소년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위 인용문의 밑줄 친 "옹달샘의 그늘에 비치는 개머루빛의 눈동자"라는 묘사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시무레는 1959년 '서클무라' 시절에 발표한 자전적 에세이「애정론」의 서두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거칠게 깎인 산길을 싸리나무 넝쿨이 감싸고, 넝쿨이 깊어지는 옹달샘에는 개머루의 덩굴이 드리워져 있었고, 개머루 빛으로 옅게 물든 입술과 혀를 벌린 채 한 소녀가 옹달샘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샘물 속 어깨 너머로 석양이 빛나고, 빛의 선은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어깨 위는 부드럽고 묵직하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듯 내려오는 전율이었습니다. (밑줄은 인용자, 全集1:89-90).

渡辺京二(2013:273)는 이 장면을 인용하며, "이시무레의 강렬한 나르시시즘"과 함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독"을 읽어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시무레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상기하면서 떠오른 근원적 고독의 기억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모쿠타로 소년의 무구한 영혼에 겹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와타나베 교지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유년기의 기억으로 퇴행한 이시무레의 고독한 자아의 나르시시즘은,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 모쿠타로 소년의 형상에 겹쳐지면서 영혼의 세계로 비약하고 있다.

이시무레가『고해정토』제1부4장의 마지막 대목에서 온 힘을 기울여 묘사하고 있는 모쿠타로 소년의 모습, "고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여운 누에처럼, 우둘투둘한 낡은 다다미 위를 기어다니며, 가느다란 배와 손발을 뒤틀어가며, 푸르고 투명한 목덜미를 쑥 쳐들고서는,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미나마타병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폭력이 부

www.kci.go.kr

과한 죄책을 육신으로 떠맡으며 감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영혼의 표상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더할 수 없는 슬픔의 힘으로 이 속악한 근대적 현상세계를 초월하여, 고통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을 품게 된다. 이것이 모쿠타로 소년의 형상을 통해 이시무레가 이룩한 중요한 문학적 성과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속악한 현상세계로부터 영혼의 세계로의 초월인 동시에, H.アレント(1994:334)가 말하는 경험과 기억이라는 "공통 감각"의 세계성으로부터의 도피, 즉 "세계 소외"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J.バトラー(2024:155)는 경험과 기억의 "타자적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고독에 침윤한 자아의 에고이즘이 키워나가는 "도덕적 나르시시즘"을 거론한다. 버틀러는 이러한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의한 확신의 윤리가 타자에 대한 "윤리적 폭력"으로 화(化)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이시무레가 그려낸 모쿠타로 소년의 영혼의 세계에서 하강하여, 구체적 경험과 기억의 세계에 실존하는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모습과 대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이 현실의 폭력을 지탱하는 기존의 가치와도 화해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제기하고자 한다.

及川英二郎(2022)는 1977년 1월 성인식을 맞이한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들이 미나마타시 공회당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거리를 향해 내뱉은 말을 기록하고 있다.

> "우리는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싶고, 이성을 찾는 나이가 되었으므로, 사랑을 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몸으로... 미나마타병이면서...'라며 비웃음만 당할 뿐이다." (及川英二郎2022:1)

오이카와는 이를 두고 '한 사람 몫을 하고 싶다'는 가치관이나 이성애주의 등 기존의 사회 규범이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일상적으로

www.kci.go.kr

부정당해 온 주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오이카와는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들에게 보상금 수령이 준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오이카와는 그들이 "회사가 맡긴 연금"이나 "포식하는 소비 경제"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오이카와는 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의존하고 보상금에 의거해 온 생활에서, 부모가 싸워 주었던 재판 투쟁을 넘어, 스스로가 개척하는 삶을 위한 투쟁을 개시하면서 자립하려는 갈망으로 움직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及川英二郎 2022:293-302).

더 나아가, 이들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들이 체득한 사상적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80년 1월 발행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소식지 격인『미나마타』제71호에는 태아성 환자 고사키 다쓰즈미(小崎達純)가 미인정 환자들의 자주교섭 투쟁을 이끌었던 가와모토 테루오(川本輝夫)에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가와모토 씨, 할 말이 있어. 나처럼 몸이 약한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及川英二郎 2022:231, 밑줄은 인용자).

고사키 소년이 상상하는 "몸이 약한 사람들의 나라"는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로 살아온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응축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의 정치학과 길항한다는 점에서, 이시무레가 모쿠타로 소년을 통해 그려낸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영혼으로서의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표상과는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또한 고사키 소년이 상상한 나라는, 장애 없는 건강한 육체를 정상성(正常性)으로 설정하는 근대 국민국가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부터 비약한 이시무레의 '혼'이 현실 세계로 하강할 때 일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존재한다. 여기서 잠시 이시무레의 현실 국가 일본에 대한 사고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이시무레는 에세이「나의 시라누이」(1968)에서 "규슈를 일본 열도의 하복부로 본다면

www.kci.go.kr

아마쿠사는 그 탯줄이고, 시라누이 해는 그 양수(羊水)라는 구도를 나는 좋아한다. 민족이라는 것을 그런 원형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내 피속에서 뜨겁게 살아난다"라고 말한다(全集1:304-305). 즉, 이시무레는 자신이 나고 자란 아마쿠사와 미나마타에 안겨 있는 시라누이 내해(內海)를 일본 열도라는 신체의 양수에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그녀가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여성사가 다카무레 이쓰에(1894-1964)에 대해 쓴 전기에서 "일본의 고대는 순수한 인간들의 시대였다"고 표현한다(石牟礼道子 2013a:453). 더 나아가 그녀는 "일본의 가장 좋았던 시대였던 너그러운 만요(萬葉)의 마음"(全集4:438)과 같은 식으로 일본의 고대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 않는다[7]. 그러므로, 이시무레에게서 모쿠타로 소년과 같은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의 표상은 무구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도덕화 및 미학화되는 한편, 이러한 현실의 국가 일본이라는 신체에 일어난 변조로도 위치지워진다.

만년기의 이시무레는 위에서 언급한 '시라누이해 종합조사단' 시절부터 교류해 온 쓰루미 가즈코의 추도회를 계기로 미치코(美智子) 황후와 교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미치코 황후를 통해 아키히토(明仁) 천황의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 위문을 추진하여 2013년 10월 26일부터 27일에 걸쳐 천황과 황후의 미나마타시 방문이 실현되었고,

---

7) 이러한 이시무레의 내셔널리즘적 사고는 다카무레 이쓰에(高群逸枝,1894-1964)의 일본 고대 여성사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카무레는 『여성의 역사』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한 일본의 고대 국가체제 성립 이전의 모계제에 의한 '족모'(族母) 사회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이 『여성의 역사』를 처음 읽었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쓰고 있다. "스스로를 '하늘이 내린 고아'라 생각해온 저에게는, 실체이자 인식 그 자체인 '어머니, 어머니들, 그리고 선조의 어머니들'을 만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닫혀 있던 여성성, 모성, 영원, 그리고 사랑의 계보에 다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편성을 저의 실체로 삼아 인류와 연결되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갈망에 다름아닙니다. 저는 저의 정신적 계보의 족모(族母)를 이츠에 선생님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천성적인 숭고함으로 인해 영원한 무구함으로 완성되었으며, 진화의 원리를 잉태하여 부활하는 여성이었습니다(全集17:214)." 이시무레에게 끼친 다카무레 이츠에의 사상적 영향에 관해서는 西川祐子(1985:175-191) 참조.

www.kci.go.kr

이때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들과의 대면도 성사되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황후에게 보낸 편지에는 "독사(毒死) 열도 몸부림치는 들판의 꽃"이라는 구절이 눈에 띈다(米本浩二 2020:380-384).

여기서 "독사 열도"란 고대부터 존속해 온 '정상적 신체'로서의 일본 열도에 일어난 미나마타병이라는 종말적 변조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시무레는 천황을 현실의 국가 일본이라는 신체의 역사적 총람자(總攬者)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독사해버린 국토의 참상을 호소한다. 이처럼, 이시무레의 현실 국가 일본에 대한 사유는 고사키 소년이 상상한 "몸이 약한 사람들의 나라"와는 다른 영역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위에서 살펴본『고해정토』1부 마지막 장면에서 니시가타 유키의 비참한 모습에 서려 있는 귀기로써 천황의 대리인을 쫓아버리는 장면이 획득한 정치적 긴장감을 이완시켜버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시무레의 전기를 저술한 米本浩二(2020:383-384)는 구마모토 공항에서 이시무레와 미치코 황후가 헤어질 때 나눈 짧은 몇 초 동안의 "눈빛과 눈빛의 무언의 대화"를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부터 비약한 이시무레의 '혼'이 다시금 구체적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 하강할 때, 그녀의 '용서와 떠맡음'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의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본론 제1절에서 제기한 문제, 즉 이시무레가 '혼의 실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스스로를 영혼의 존재로써 정체화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시무레와 동료들이 제기한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적 태도에는 미나마타병의 피해 당사자이자 책임을 떠맡으며 용서하는 주체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을 영혼의 투쟁으로, 그 피해자인 미나마타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미학적・도덕적 주체로 정체화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이시무레는 미나마타병의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어야했던 고통스러운 경험과 기억에서 영혼의 세계로 비약

www.kci.go.kr

하였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이 ‘정체성’이란 경험과 기억이라는 타자적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는 것일까. E.W. サイード(2003:72)는 정체성이란 그것을 강요하는 지배적 언설 체제와의 격투(格闘)를 통한 “기원적 단절”, 혹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자”(瑕疵)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구성하거나 상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관용이나 연민과 같은 완충제의 투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번거롭고 다양한 장애를 만들어내어 불안정한 세속의 고통으로서 그것을 마주함으로써, 포박 아래에 있는 다른 아이덴티티에 결속되고 또 말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만년기의 이시무레가 내건 ‘용서와 떠맡음’이 사이드가 말하는 완충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용과 연민”과 같은 윤리적 올바름이나, “치유” 혹은 “스토아적인 정적과 같은 상태”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상계에 실재하는 경험과 기억과 대면하여 각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하자”(瑕疵)의 존재를 통하여 “포박 아래에 있는 다른 아이덴티티에 결속되고 또 말을 걸 수 있”는, 일종의 ‘대화적 상태’를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시무레의 작품 세계의 곳곳에는 마치 고대 모계제 사회의 ‘족모’(族母)와 같은 시선으로 불안정한 세속의 고통으로서의 “하자”를 마주하는 형상이 그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이시무레는『고해정토』제2부에서 당시 보상인정서 체결 문제를 두고, 즉각적인 투쟁을 주장하는 ‘소송파’와 달리, 미나마타 지역 사회에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에 마음 졸이면서, ‘높은 분’들의 은전에 기대하던 이른바 ‘일임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선량하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그리고 있다. 특히, 이시무레는『고해정토』제2부 5장에서 일임파를 이끄는 야마모토 마타요시(山本亦由) 노인이 자신을 향한 소송파들의 비난에 대해, ‘인간의 유대’라고 괴롭게 읊조린 것을 여러 차례

www.kci.go.kr

언급한다. 결국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시무레는 "인간의 유대, 라고 그가 했던 말. 그것은 그의 유언이다. 그것은 아무리 몸을 비틀어도 자신을 잘라낼 수 없는 대지의 끈, 대지가 되어버린 인간 속 끈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全集2:540).

그러나 만년기의 이시무레에게서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유대"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경험과 기억이라는 타자적 세계와의 대화적 상태보다, 종말론적 세계 속에서 '언령'의 힘에 기댄 치유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나고 한달이 지났을 무렵, 당시 84세의 최만년기에 이른 이시무레는 「꽃을 봉헌하다」(花を奉る)라는 시를 발표한다.

> 봄바람 움튼다고 하나, 인류의 겁진(劫塵) 이제는 겹겹이 쌓여 삼계(三界)는 말할 길 없이 어둡구나 눈을 내리깔고 간신히 나날을 견디지만 무엇에 이끌림인가 허공 저 멀리 한 줄기 꽃 바야흐로 피어나려 함을 듣노니 한 잎 꽃잎 저 너머로 몸짓하는 것을 환상인 듯 바라보면 상세(常世)의 아스라한 빛을 꽃은 그 품에 안았어라 상세의 아스라한 빛이란 새벽 연꽃 연못에 흔들리는 꽃봉오리 같아서 대대의 비원을 나타내나니 그 한송이 꽃을 받들어 기댈 곳 없는 오늘의 혼에 봉헌하려 하노라 (중략) 그저 멸망의 때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릴 뿐인가 여기에서 우리 또한 지상에 피어나는 한송이 꽃의 힘을 염원하며 합장하노라. 2011년 4월 20일. (石牟礼道子 2013b:16-17, 밑줄은 인용자)

이 시는 3.11 동일본대지진의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한편 미증유의 원전 사고가 상기시키는 문명의 종말에 대한 예감이 감돌고 있다. 이 시는 위의 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시무레가 도쿄 연좌 농성 당시 처해있던 극한의 정신적 상황에서 떠오른 '한 송이 꽃의 환상'이, 3.11이라는 재앙을 겪고 있는 세계에서 "지상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으로 그 형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시

www.kci.go.kr

무레는 언어가 가진 영적 힘, 이른바 '언령'(言霊)의 힘에 기대어, 그녀 자신의 혼을 "한송이 꽃"에 담아 종말론적 세계 속 치유(癒し)의 언어로써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인류의 겁진(劫塵)"을 응시하며 "새벽 연꽃 연못에 흔들리는 꽃봉오리"의 환상적 이미지에 기대어 "멸망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종말론적 세계에서, 부처님께 "지상에 피어나는 한송이 꽃의 힘"을 기도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적 태도에는, "우리들을 낳아준 국토가 독으로 범벅이 되고, 이미 인간 그 자신이 독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절망적인 시대 인식과 더불어,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들의 고향이라고도 불러야할 초월적 모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회귀의식이 바탕해 있음을 알 수 있다(米本浩二 2020:358-361).

1973년 미인정환자 투쟁 당시의 야마시타 마사요시 노인을 통해 '인간의 유대'를 읊조리던 이시무레의 '족모'의 시선은, 2011년 최만년기에 이르러서는 종말론적 시대 인식 속에서 형이상학적 종교성에 침윤해 있다. 이와 같이, 만년기의 이시무레가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태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 하강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혼의 세계를 하나의 정신적 실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시무레의 사상적 변화를 퇴행 혹은 초월이라는 윤리적 올바름의 이분법적 잣대로써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Ⅲ. 결론 및 이후의 논의 과제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시무레는 자신의 문학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서클무라' 시절 체득한 기키가키라는 구술 기록의 방법론을, '혼'을 매개로 타자와 자신을 스스로 겹쳐가는 급진적 방식으로 자기화했고, 『고해정토』에서 이를 구현하였다. 여기서 근대적 문학 세계

www.kci.go.kr

에서 자아와 타자를 구획하는 습속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시무레 특유의 문학적 '공동성'이 싹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시무레는 오랜 시간 동안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의 최일선에서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상금 인정서'와 같은 금전적 보상체계를 둘러싼 다툼과 이로 인한 환자 가족 내부의 분열, 지역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근대적 도시 문명의 정신적 불모성을 체감하고 깊이 절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쌓아왔던 정신적 고통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혼'을 단지 형이상학적 관념이 아닌 정신적 '실재'로 체감하였다.

만년기 이시무레의 사상적 태도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용서와 떠맡음'은 이시무레가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싸움에서 얻었던 이러한 경험과 기억을 통해 배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무레는 사카가미 유키의 기억을 통해 미나마타병 이전의 비-근대적 세계가 담고 있는 환상적 아름다움과, 현실 속에서 그녀가 실제로 겪고 있는 비참함을 대조시키면서 중요한 정치적 긴장감을 획득했다. 그러나, 만년기의 이시무레는 이렇게 도덕화・미학화된 표상의 세계에서, '용서와 떠맡음'의 사상적 태도로써, 경험과 기억의 세계로 하강하지 못한 채 '언령'이 갖는 '치유'의 힘에 기대어, '살아있는 존재들의 근원적 모태'로 회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이시무레가 이 과정에서 미나마타병의 투쟁과 환자 및 가족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도덕화 및 미학화하는 문제를 두고, 구체적 경험과 기억의 '공통 세계'로부터의 이탈 혹은 비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이것이 만년기 이시무레의 '용서와 떠맡음'이라는 사상적 태도와 결합하여 결실을 맺은 천황의 태아성 미나마타병 환자 방문을 통해서 보듯이, 이시무레의 문학이 획득해온 정치적 긴장을 이완시키는 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만년기 이시무레의 사상적 태도에 관해서는, 그녀가 나고 자란 시라누이해 인근에 살던 민초들이 대대로 이어온 언어적・정신적 풍토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유년기부터 군국주의 파시즘

www.kci.go.kr

시대를 거쳐, 전후기(戰後期)인 1950년대 초중반에 그녀가 시도한 세 차례의 자살 시도에서 엿볼 수 있는 허무와 상실감, 그리고 고도 경제성장기 초입에서 만난 미나마타병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헤쳐온 경험과 기억 세계의 전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8]. 본고는 미나마타병의 투쟁의 과정에서 이시무레가 겪었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그녀의 만년기의 사상적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이시무레의 사상적 태도를 윤리적 올바름에 기초한 이분법적 이해를 넘어, 이시무레의 경험과 기억의 세계, 그리고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이해의 지평 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시무레의 문학 세계는 고도 경제성장기 일본 사회의 그늘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근대적 폭력과 이에 대한 문학적・사상적 응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시무레의 문학에 관한 논의는 근대 문명의 종언과 전환이 운위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현재적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田中優子(2020:9-32,155-208)는 이시무레가 나고 자란 시라누이해 연안의 언어에 투영되어 있는 종교적 성격을 분석하면서, ‘함께 번민해주는 신’(もだえ神)의 존재를 제기하고, 이들의 일상적 언어에 투영된 ‘혼의 공명’이 갖는 사상성을 에도문화와 애니미즘의 시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또한, 米本浩二(2020:34)는 시라누이 연안 지역의 언어습관에서 인격에 대한 최상급의 상찬은 ‘혼이 깊은 사람’이라는 표현이라고 말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심정명(2015),「경계를 묻는 문학적 실천: 이시무레 미치코『고해정토』로부터」,『비교문학』66, 한국비교문학회, 91-111.

오미정(2019),「고도성장기의 반근대적 상상력- 이시무레 미치코의『고해정토』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연구』109, 한국일어일문학회, 269-290.

アレント, H. 志水速雄 訳(1994),『人間の条件』, 筑摩書房.

石牟礼道子(2004-2012),『石牟礼道子全集・不知火』, 藤原書店.

石牟礼道子・池沢夏樹対談(2011.2.25.),「近代という病いを見つめて」『週刊読書人』, 1-2.

石牟礼道子(2013a),『最後の人－詩人高群逸枝』, 藤原書店.

石牟礼道子(2013b),『花を奉る――石牟礼道子の時空』, 藤原書店.

臼井隆一郎(2014),『「苦海浄土」同態復讐法の彼方』, 藤原書店

及川英二郎(2022),『現代日本の規律化と社会運動』, 日本経済評論社.

佐藤泉(2023),『死政治の精神史―「聞き書き」と抵抗の文学』, 青土社.

酒井隆史・佐藤泉(2022),「接触と連帯の思想」『現代思想』50(13), 211.

サイード, E.W. 長原豊 訳(2003),『フロイトと非-ヨーロッパ人』, 平凡社.

高橋源一郎・斎藤真理子(2021),「聞書には闘いのすべてがある : 森崎和江・石牟礼道子・藤本和子」,『文芸』60 (4), 河出書房新社, 172-187.

田中優子(2020),『苦海・浄土・日本 石牟礼道子 もだえ神の精神』, 集英社.

西川祐子(1985),「一つの系譜―平塚らいてう, 高群逸枝, 石牟礼道子」『母性を問う(下)』(脇田晴子編, 人文書院), 175-191.

野田研一・結城正美編(2004),『越境するトポス―環境文学序説』, 彩流社.

水溜真由美(2005),「石牟礼道子と水俣―ゆらぐ『共同体』像」『カルチュラ ル・ポリティクス』, 北田暁大・野上元・水溜真由美

www.kci.go.kr

編, せりか書房, 214-215.
バトラー, J. 佐藤嘉幸・清水知子訳(2024),『自分自身を説明すること』, 月曜社.
編集部(2018),『総特集 石牟礼道子』(『現代思想』 46-7), 青土社.
編集部(2018),『追悼 石牟礼道子―さよなら不知火海の言魂』, 河出書房新社.
渡邊英理(2025),『到来する女たち―石牟礼道子・中村きい子・森崎和江の思想文学』, 書肆侃侃房.
渡辺京二(2013),『もうひとつのこの世―石牟礼道子の宇宙』, 弦書房.

www.kci.go.kr

ABSTRACT

A Consideration of the Ideology of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in the Late Works of Michiko Ishimure

Yi, Gyesam
Doshisha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that emerged in the later years of Ishimure Michiko (1927–2018). Ishimure centered her literary work on "Minamata disease," a symbol of the darker aspects of Japan's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and engaged in a spiritual confrontation with the violence of modern civilization. This study highlights her experiences and memories during the struggle surrounding Minamata disease.

After first encountering Minamata disease patients in 1959, Ishimure spent many years alongside them. During this time, she observed disputes over monetary compensation, the internal divisions amo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conflict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dditionally, she was troubled by the violence of the modern medical system, particularly the autopsies conducted on deceased patients. This led her to feel profound despair toward the spiritual emptiness of contemporary urban civilization, which she witnessed firsthand at the site of the struggle. When the psychological suffering from these experiences reached its peak, she began to perceive the "soul" not just as a metaphysical concept, but as a tangible spiritual "reality." It is from this realization that the seeds of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seem

www.kci.go.kr

to have emerged.

The attitude of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which encapsulates Ishimure's late-period thought, was shaped by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she gathered from the Minamata struggle. It served as a means to shield herself from the "grudge" that plagued her and as a way to continue her spiritual confrontation with modern violence.

By contrasting the beauty of the non-modern world with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Minamata disease patients, Ishimure created a significant political tension.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in her later years, Ishimure eased this political tension by framing the Minamata struggle as a matter of the "soul," portraying the victims as moral and aesthetic symbols, and systematizing these concepts into the philosophy of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Keywords: Ishimure Michiko, Minamata Disease, Forgiveness and Responsibility, Experience and Memory, The Reality of the Soul

▌논문투고일 : 2026. 01. 10
▌심사완료일 : 2026. 02. 02
▌게재확정일 : 2026. 02. 09

www.kci.go.kr